

수원FC, 19일 성남FC와 홈 개막전 '후끈'

등록 2016.03.17 16:33:03 | 수정 2016.12.28 16:46:19

【수원=뉴스1】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을 동일 연고지로 한 프로축구 2개 구단이 주말 이틀 동안 K리그 클래식 2016 홈 개막전을 연이어 벌이며 수원을 축구 열기로 달군다.

지난 시즌 K리그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승격한 수원FC는 19일 성남FC를 수원종합운동장으로 불러 홈 개막전을 벌인다.

수원FC는 이번 경기가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두 구단주 사이에 경기의 승자가 자신의 구단기를 상대 홈구장에 직접 게양하는 이른바 '깃발라시코 (깃발+엘클라시코)'가 걸려 있어 총력을 기울여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홈 개막전에서는 올 시즌 이적시장 대박으로 불린 벨기에 국가대표 경력의 공격수 마빈 오군지미와 스페인 1부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미드필더 가빌란이 출전할지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FC는 13일 광양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데뷔전에서 오군지미와 가빌란이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올해 영입한 호주 국가대표 출신 레이어와 3년째 수원FC를 지키고 있는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출신 블라단의 철벽 수비로 비겨 값진 승점 1점을 챙겼다.

성남FC도 12일 성남에서 김두현의 시즌 1호 골과 티아고의 추가골로 수원삼성을 2대0으로 완파한 막강 기세를 몰아 구단기를 굳게 지키겠다는 의지다.

수원삼성은 2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홈 개막전을 갖는다. 수원삼성은 앞선 경기에서 수원FC와 0대0으로 비긴 전남을 같은 연고지 형님 구단으로써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다.

이날 수원FC 홈 개막전에는 식전행사로 수원화성을 굳게 지킨 장용영 군영의 수위의식과 취타대 공연이 열린다. 하프타임에는 수원FC 클럽송을 헌정한 록밴드 트랜스픽션이 출연해 열기를 이어간다.

개막전에는 김치냉장고, 호텔숙박권, 건강검진권, 한우교환권, 치킨교환권, 자전거 50대 등 수원FC 풀뿌리 후원사들의 정겨운 경품 172점이 걸리고 K리그 공식맥주 '볼비어'가 경기장 앞에서 축구를 모티브로 한 이벤트로 흥을 돋운다.

수원삼성은 기업구단답게 500만원 상당의 삼성 SUHD TV 2대, 캐리비언베이 이용권 10장, 에버랜드 이용권 10장, 마들렌 이용권 30장, 무스쿠스 수원점 이용권 10장, 민속촌 이용권 10장 등 홈 개막전 경품도 화끈하게 준비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주말 수원시민은 우리나라 프로축구 역사상 최초의 동일 연고지 2개 구단 도시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것"이라며 깃발라시코와 관련 "수원FC 구단기는 아직 수원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